

제목 : 지혜복 교사 복직 입장발표 기자회견

문의 : 최은경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010-5281-3727, 010-2956-1917)

공대위 SNS : 트위터 <https://x.com/aschooljustice/>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61561407449393>

마침내 A학교로 돌아갑니다

지혜복 교사 복직 입장발표 기자회견

2026년 9월 9일(수) 11:00 서울시교육청 앞

지혜복 교사는 2023년 5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A학교 관리자들은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신원을 유출시켰고, 피해학생들은 극심한 2차가해에 시달려야했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교육당국에 이를 제보하며 해결을 촉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부당한 전보였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결국 해임되었습니다.

오랜 투쟁으로 진실이 밝혀졌고, 사법부는 전보와 해임 모두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럼에도 지혜복 교사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공대위는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과 양육자, 지혜복 교사, 집단연행 피해자들과 부상자들에 대한 정근식 교육감의 사과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회복지원, 서울 학교 성폭력 전수조사 및 학내 성폭력사건 처리절차 개선, 포괄적 성교육 도입 △A학교 성폭력 사안 축소·은폐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교육당국에 A학교 문제 해결을 요구하다 끌려가고 다친 연대자들의 피해에 대한 회복지원 △공익신고자 탄압에 대한 징벌적 배상 등을 요구하며 투쟁과 교섭을 이어왔습니다.

오랜 투쟁 끝에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과 합의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혜복 교사는 A학교로 돌아갑니다.

공대위는 9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교육청과의 합의와 지혜복 교사의 A학교 복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함께 싸운 노동·시민·사회운동에 감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밝히고자 합니다.

기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